

경기남부 유일 5성급... 자연·꿀벌과 함께 '풀서비스' 누리요

크로포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분당·판교 사이, 오피스 단지 밀집 지하 4층~지상 21층... 602개 객실 체크인 순간부터 환대 제공 방침 통창뷰 객실·화장실, 감성 욕조까지 욕상서 채취한 꿀로 음식메뉴 구성

지난달 말 경기 남부 유일한 5성급 호텔인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를 방문했다. 이곳은 한국에 진출한 지 40주년을 맞이한 힐튼의 명성답게 자연을 토대로 한 인테리어가 돋보였다.

'더블트리'라는 호텔 이름처럼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곳곳에 배치된 나무, 식물, 화분, 꽃들이 눈에 띄었다.

더블트리 바이 힐튼은 호텔 체인 힐튼의 22개 브랜드 중 '풀서비스' 브랜드에 속한다. 풀서비스 호텔이란 부대 시설 기준에 따라 연회장, 레스토랑 2곳 이상,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을 고루 갖춘 곳을 의미한다.

올해 4월 문을 연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에 소재하고 있다. 분당과 판교를 잇는 길목에 소재해 오피스 단지외도 밀접한 게 특징이다.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는 지하 4층부터 지상 21층까지 432개의 호텔 객실과 170개의 레지던스를 포함한 총 602개의 객실로 구성되었다.

호텔 로비서 체크인을 하자 따뜻한 쿠키가 제공됐다. 힐튼의 섬세함에 호



더블트리 바이 호텔 외부.



통창과 함께 어우러진 감성적인 욕조.

텔 첫 인상부터 따뜻함이 느껴졌다.

'체크인을 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웰컴 쿠키나'는 기자의 질문에 호텔 관계자는 "체크인을 하는 순간부터 환대를 제공하겠다는 호텔의 방침이다"고 답했다.

쿠키에도 스토리가 담겨 있다. 2019년 11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구워져 '우주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쿠키'라는 타이틀을 획득한 특별한 쿠키라고 한다.

호텔의 객실에는 앞에 통창을 통해 뽕뽕린 경부고속도로 뷰가 인상적이었다.

객실 내 가장 인상깊었던 건 단연 화장실이었다. 화장실은 통창에 감성적인 욕조가 돋보였다. 화장실의 어메니티는 영국브랜드 '크래트리 앤 에블린'의 샤워젤, 샴푸, 컨디셔너가 배치돼 있었다. 모든 어메니티는 디스펜서 형태로 환경을 생각하는 힐튼의 정교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호텔의 부대시설도 즐길거리가 많았다. 실내수영장,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시설까지 갖췄다. 스크린 골프는 1개의 룸으로 이뤄졌고 실내 골프장의 경우는 총 6개의 타석과 1개의 강습용 타석으로 배치됐다.

2층 호텔과 레지던스호텔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피트니스센터는 150평 규모로 수 십가지의 기구 모두 최상급의 브랜드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자아냈다. 야외에는 최대 250명이 수용 가능한 552평 규모의 연회 공간이자 정원 '더 테라스'가 자리해 있다.

더블트리 바이 힐튼의 시그니처 레스토랑&루프 탑 니스를 방문했다. 21층에 위치한 니스는 입구부터 세련된 컬러의 벽과 큰 문이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높은 층고에 한번 놀라고 수백가지의 위스키, 와인,

럼 등의 술병들로 가득 차 있는 바의 웅장함에 두번 놀랐다.

이곳의 메뉴는 '시저샐러드와 국내산 베이컨 스테이크, 통영굴찜, 성계알탈리아텔레, 와규안심스테이크, 랍스터구이' '허니밤' '꿀벌 바바로아즈' 등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졌다.

꿀이 베이스로 된 메뉴가 많은 것에 대해 관계자는 "호텔 욕상에서 양봉장을 하고 있다. 꿀을 직접 채취해 메뉴를 구성한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실제 20만마리의 꿀벌이 레지던스 빌딩 옥상에 위치한 '루프탑 비팸'이라는 양봉장에서 꿀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궁금한 건 못참지'란 생각을 하며 욕상에 위치한 양봉장을 방문했다.

도심 한 가운데 양봉장이라니 놀라웠다. 실제 보호종인 벌꿀들이 눈앞에 수십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벌꿀 관련 메뉴들의 향이 유달리 진했던 이유다.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는 힐튼의 글로벌 ESG 프로그램인 '목적 있는 여행(Travel with Purpose)'의 일환으로 꿀벌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호텔 1층에 위치한 인터내셔널 뷔페 '데메테르'에서는 직접 채취한 꿀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더블트리 바이 힐튼의 투숙율은 주말에는 80~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국내 호캉스족들까지 두루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관계자는 "더블트리 바이 힐튼은 판교지역 주민뿐 아니라 고속도로와 밀접해 있어 여행객들의 방문이 두드러진다. 호텔의 가장 큰 목적은 여행객들이 편안하고 친숙하게 즐기는 것이다. 더블 트리 바이 힐튼은 여기에 따뜻함까지 더했다"며 "최근 경기 남부 최초로 5성급 호텔 등급을 획득한 것을 계기로 마케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양봉 사진.

CJ올리브영 '100억 클럽', 中企 51% 차지

100억클럽 브랜드 수, 전년比 30%↑ 매출 상위 10대 브랜드 중 7곳 中企

CJ올리브영이 국내 신생 뷰티 브랜드와 중소기업 브랜드를 육성하는 'K뷰티 인큐베이터'임을 입증했다.

CJ올리브영은 입점 브랜드 중 지난 2023년 100억원 이상의 연 매출을 기록한 '100억 클럽'에 해당하는 브랜드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늘어났다고 6일 밝혔다.

리쥬란, 메디필 등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화장품, 남성화장품, 헤어및바디 제품까지 다양한 브랜드가 '100억 클럽'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무엇보다 '100억 클럽'에서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20년 39%에서 2023년 51%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중소브랜드들이 올리브영에서 올리는 매출 규모도 커졌다. 매출 상위 10대 브랜드 중 국내 중소 브랜드는 ▲넘버즈인 ▲닥터지 ▲라운드랩 ▲룸앤 ▲메디힐 ▲클리오 ▲토리든 등 7개다.

중소K뷰티 브랜드들이 CJ올리브영의 채널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올리브영의 설명이다.

실제로 CJ올리브영은 전국 1300여 개에 이르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CJ올리브영 대표 매장 전경.

/CJ올리브영

온라인에서 '오늘드림' 배송 서비스 등을 갖췄다. 또 해마다 3월, 6월, 9월, 12월 최대 할인 행사인 '올영세일'을 비롯한 계절별 캠페인을 전개해 K뷰티를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 올리브영 입점은 인지도 제고, 매출 증진,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위한 등용문이 되고 있다.

CJ올리브영에 따르면 '올리브영 클린뷰티'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토리든'의 경우 2022년 처음 '100억 클럽'에 입성한 데 이어 지난 2023년 올리브영에서의 매출이 4배 늘었다.

2021년 입점한 '넘버즈인' 또한 지난 2023년 한 해에만 매출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처음으로 올리브

영에서 연 매출 1000억원을 기록한 중소기업 브랜드도 등장했다. 색조 브랜드 '클리오'와 선크림으로 유명한 '라운드랩'이다.

CJ올리브영은 올해도 K뷰티 산업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CJ올리브영은 올해부터 3년간 총 3000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상생경영안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브랜드와 상품 기획,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등 전 과정에서 단계별로 신진 브랜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mlee236@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셀트리온, 먹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가시화

우스테키누맙, 임상1상 긍정적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넘어 '차세대 치료제 확보'라는 목표를 가시화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미국 라니 테라퓨틱스가 경구형 우스테키누맙(개발명: RT-111)의 임상 1상에서 긍정적인 톱라인 결과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라니 테라퓨틱스와 협의해 글로벌 개발 및 판매 우선 협상권 행사 절차에 돌입한다. 셀트리온은 지난 1월 라니 테라퓨틱스와 경구형 우스테키누맙 개발을 위한 라이선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해 임상 1상 결과에 따라 글로벌 개발 및 판매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확보한 바 있다. RT-111은 셀트

리온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CT-P43을 경구형으로 개발 중인 제품이다.

호주에서 진행된 이번 임상에서는 건강한 성인 55명을 대상으로 RT-111의 약동학 및 안전성을 확인했다. 임상 결과 경구형인 RT-111은 우스테키누맙 피하주사(SC) 제형 대비 84%의 높은 생체이용률을 나타내 유사한 수준의 약동학을 입증했다.

셀트리온은 CT-P43을 경구형으로 개발하면 환자 투여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글로벌 우스테키누맙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CT-P43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인터루킨(IL)-12, 23 억제제 '스텔라라'는 판상형 건선 등의 적응증에 사용된다.

/이정하 기자

한미약품, 재미한인 제약인들과 교류

재미한인 제약인협회 심포지엄 후원

한미약품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대 제약·바이오 업계에 종사하는 한국인 과학자들과의 교류에 나섰다.

한미약품은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재미한인 제약인협회 샌프란시스코 지부 심포지엄'에 후원사로 참

여했다고 6일 밝혔다.

재미한인 제약인협회는 미국 제약·바이오 업계에 종사하는 한국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샌프란시스코 지부는 매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최 시기에 맞춰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를 열고 있다.

/이정하 기자